

## 존경하는 학부모님!

이천년 역사 고도인 익산의 학생들은 백제의 숨결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한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가의 책임과 의무인 공립유치원 설립

교육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애 초기 유아기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으며, 각 시기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그 중 유아기의 교육적 결손은 이후 누적적 교육격차를 현격하게 발생시키므로 국가는 만3~5세 유아들의 교육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국민이 낸 세금을 공립유치원 설립에 사용하여 모든 국민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에 있어 익산의 어려움

익산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도의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부에서 지원받아 현재 한 곳 뿐인 단설유치원 수를 증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익산 지역의 보다 많은 유아들에게 공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예산을 사립유치원 지원이나 어린이집의 유아학비 지원, 또는 어린이를 위한 교통공원 설립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사업과 공립 유치원 설립 사업 예산은 전혀 다르므로 단설유치원 설립이 무산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 사용할 수 없으며, 익산교육지원청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예산이 타 시도로 넘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번 단설유치원 설립이 무산된다면 향후에도, 우리 익산에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 유치원기관 선택권은 학부모의 요구

익산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용하고 있는 3~5세 유아는 공립 14%, 사립42%, 어린이집 44%로 유아들의 교육을 사립과 어린이집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 유치원의 학급이 195개인 것에 비해 공립유치원은 82학급으로 현저히 낮으며 그마저도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단일학급 병설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연령별 누리과정을 실시하기에 최적의 기관인 공립 단설유치원은 단 한 곳에 불과하므로 실제적으로 유치원기관 선택권이 있는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규모가 비슷한 군산은 단설유치원이 3곳이며 전주는 4곳, 인구수 9만인 완주에도 2곳이 있어 인구 30만명인 익산지역 학부모님이 상대적으로 단설유치원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 효과

단설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이므로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단설유치원이 많아지면 사립유치원 또한 학부모님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교육비 인상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할 수 있어 유치원 교육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입니다.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측에서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알고 있으나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익산교육지원청이 유치원교육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미 훌쩍 성장한 자녀를 두셔서 지금 당장은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훗날 내 자녀의 아들, 딸들이 받을 혜택에 대해 생각해 주십시오.

설립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반대보다는 설립을 통해 익산시와 익산시 교육의 미래에 가져다 줄 의미와 효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5년 10월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 지 득 류 지 득